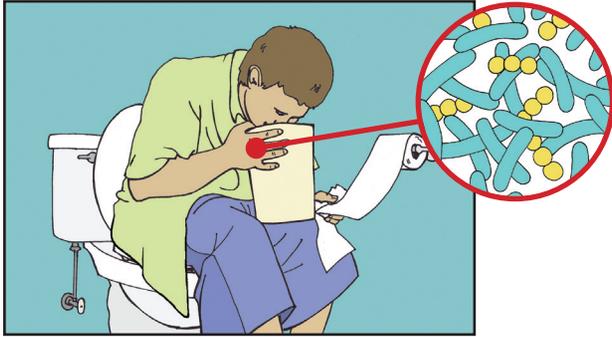


저는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.



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에서 깬어요. 설사를 하면서 동시에 병이 난 거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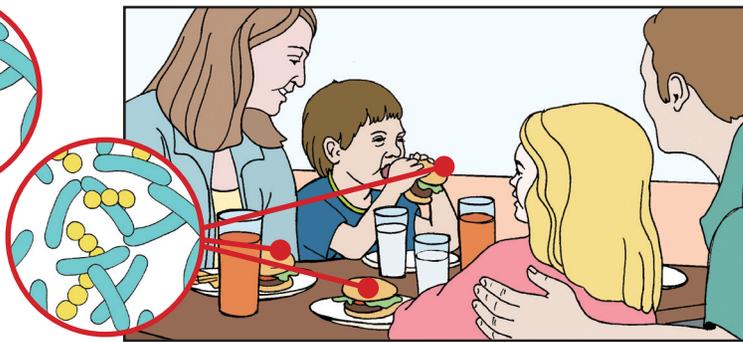
오로지 누워 있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납부할 고지서가 쌓여 있으니 집에서 쉴 처지가 아니었지요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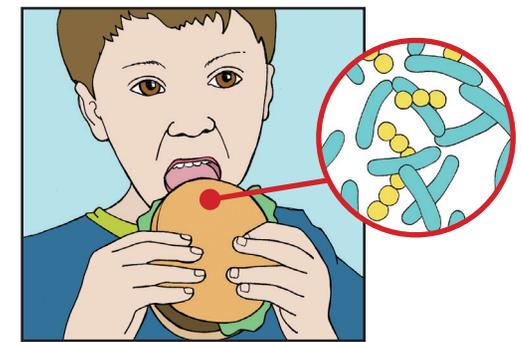
저는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. 분명히 제 느낌만큼이나 몸이 안 좋아 보였을 거예요.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.



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저는 곧바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.



카를로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죠. 그는 이 식당을 즐겨 찾거든요.



음식이 나오자 그는 곧바로 식사를 시작했고 자신의 햄버거를 다 먹은 다음에 여동생 것도 조금 더 먹었어요.



그날 밤 카를로스는 심하게 복통을 앓았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 갔지요.



아픈 상태에서 제가 조리한 음식을 먹고 병에 걸린 사람이 33명이나 된다는 걸 알았어요. 보건 당국은 저희 식당을 폐쇄했습니다.



제 생각이 옳았어요. 그때 저는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.. 한동안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소득이 없어졌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.

어디서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. 질병에 걸리면 집에서 쉬십시오.

